

황혜영 '뇌수막종' 투병 공개…"3년간 시한부로 살아"

등록 2023.02.17 00:00:00 | 수정 2023.02.19 11:30:03



[서울=뉴시스] 황혜영 팔. 2023.02.17. (사진 = 인스타그램 캡처) photo@newsis.com *재판매 및 DB 금지

[서울=뉴시스]전재경 기자 = 혼성그룹 '투투' 출신 방송인 황혜영이 뇌수막종 투병 사실을 공개했다.

황혜영은 지난 16일 소셜 미디어에 "진단을 받고 수술을 한 지 12년이 지났고 처음 3년은 6개월 마다 그후 3년은 1년 마다 그 후엔 3년 마다 추적관리를 하기로 한 후 오늘 3년이 되는 두 번째 MRI 검사"라면서 이렇게 고백했다.

이어 "3년 동안은 잊고 살아도 되겠다는 담당의의 말이 그때는 그렇게 개운하고 감사했었는데 막상 그 3년이 되고 다시 검사하고 다시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이 되니 지난 3년이 시한부였구나… 사람 맘 참 간사하다"고 털어냈다.

또 "검사 결과 나오는 이제부터 1주일도 내 맘은 폭풍 속이겠지만 힘든 마음 주저리주저리 떠들지 못하는 성격이라 최대한 티 안 내고 조용히 마인드컨트롤 해야겠다"라고 덧붙였다.

한편 1994년 투투로 데뷔한 황혜영은 2011년 민주통합당 전 부대변인 출신 김경록과 웨딩마치를 올렸다. 이들 부부는 쌍둥이 아들을 두고 있다. 황혜영은 현재 쇼핑몰 운영이 주업이다.

©공감언론 뉴시스 for3647@newsis.com

Copyright © NEWSIS.COM,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